



#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최종 통과

###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가결 도시공원 내 일정 면적에 비공원시설 조성 허용 환경단체 반발... 8월 초쯤 실시계획 인가 예상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불구하고 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동의안을 심사한 환경도시위원회는 용수 공급·하수 처리 대책과 함께 공원 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부지 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두 동의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제주지역 첫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민간이 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이 인가되면 일몰 시한을 넘겨도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부지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일몰 시한(8월 11일)을 1년 9개월 가량 앞둔 지난 2019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 2곳과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제주시는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초를 즈음해 두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

정이다.

이후 시는 최대 1년 6개월 간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25년쯤 사업을 완료한다.

그동안 도내 환경단체는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도심 숲이 파괴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해왔다. 환경단체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 앞에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한 데 이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국립 이견희 미술관 제주분관 유치를”

### 문경운 의원 5분 발언·제안

문경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9일 국립 이견희 미술관 제주분관 유치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9일 서귀포시가 고(故) 이견희 회장 일가로부터 이종섭 작품 12점을 기증 받는 경사가 있었다”면서 국립 이견희 미술관 제주분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고 이견희 기증작 2만3000점 중에는 근 현대미술작품 1488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 정도 작품



수라면 국립 이견희 미술관 분관을 전국에 5곳 이상 건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제주에 서귀포 이종섭미술관, 김창열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준 높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위 분권 실현을 위한 ‘국립 이견희 미술관’ 제주분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 제주도, 7월 1-3일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협치·소통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도정 관심도를 높이고 소통과 합의능력을 향상시켜 지역현안 해결을 위

한 집단 시너지 창출을 돕는 협치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청년층의 양성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회의 또는 워크숍 운영 등을 5회 이상 실행하면 전문 자격인 퍼실리테이터 인증자격 취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 “국가수사본부, 빠른 수사 해달라”

### 오영훈 의원, 경찰청에 사실관계 소명 자료 제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9일 국가수사본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관계 해명 자료를 민원실에 전달하며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서류 제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권익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수본에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며 “국수본은 지체하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법률 전문가 및 농지는 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를 통해 권익위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해당 농지는 1994년

결론 이후 가족과 실경작해왔고 주소득원이었다. 2001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임대도 작성한 바 있다”며 “또한 제주감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지법 제23조의 징벌,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없으므로 당의 탈당 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 “제주 등 백신 우선접종 3분기 계획 수립시 검토”

정부가 제주 도민 백신 우선접종과 관련해 3분기 접종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질병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날 제주도가 제주도민 우선접종을 건의한 것과 관련 수용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다”면서도 “다양한 우선접종 요구에 대해 종합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현재 예방접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우선접종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제주도가 건의를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 라든지, 수도권부터 우선접종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다양한 우선 접종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3분기 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 검토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헌기자

#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

### 도, 어제 기본계획 발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자원순환 3대 목표 제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하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열린 제주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가공식에서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제주(2030 WFI, Waste Free Island Jeju)’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제주를 자원 순환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3대 목표로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20년 대비 30% 감축, 재활용자원 순환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제주의 땅속에 쓰레기를 파묻는 행위가 계속되면 생활환경은 물론 생명과도 같은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유기성 폐기물 12%가량이 직매립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폐기물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9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열린 제주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가공식에서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직매립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및 관광 분야에서부터 ‘탈 플라스틱’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현재 65% 남짓한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폐기물 집하장 시설 현대화, 제주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자원 순환 인프라부터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활용 산업을 도내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번모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사를 시작한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로 하루 최대 34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이듬해부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공고 제2021-1601호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0.  
서귀포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공동주택 641세대(분양 503세대, 임대 138세대)  
- 부지면적 : 107,596㎡(분양 86,006㎡, 임대 21,590㎡(기부채납))  
- 연 면 적 : **지상 83,816.16㎡** (지하 40,413.74㎡, 합계 124,229.90㎡)  
라. 시 행 자 : ㈜하이맥스  
마. 사 업 비 : 약 3,321억원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1년 7월 8일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다. 공람장소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03) 대정읍사무소(건설팀) (☎064-760-4096) 보성리사무소 (☎064-794-2617)  
라. 홈페이지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마. 의견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까지 (2021년 7월 15일)  
바.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서면제출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년 06월 18일(금) 18:00  
나. 장 소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사무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eju 서귀포시 서귀포YWCA

## 2021 온&오프라인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

온라인 2021. 6. 14.(화) - 7. 2.(금) www.서귀포취업박람회.com  
오프라인 2021. 6. 30.(수) - 7. 2.(금) 13:00-17:00 | 서귀포YWCA회관

• 대 상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서귀포 관내 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온라인 입사지원, 비대면 컨설팅, 현장면접 및 화상면접, 이력서사진촬영 등

참여자 상품권증정

YWCA 서귀포YWCA T. 762-1400 F. 762-1401 63596 서귀포시 부도동3 (이중성미술관 남영)

## 전국공모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서에대전 공모요강

서예 공모전을 통하여 서예 고유의 예술성, 전통성, 학문성을 한층 뚜렷이 하고 서예인들의 자긍심과 창작의욕을 드높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기간 : 2021년 8월 21일 ~ 8월 26일
2. 전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회관 전시실
3. 부 문 : 한글(국·한문순서 포함), 한문, 문인화, 전각, 서각, 현대서예
4. 원서교부 : 2021년 6월 03일 부(본) 협회 사무국 및 한국서예협회 홈페이지 게시
5. 작품접수 : 2021년 7월 01일 ~ 02일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7월 2일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무실 (제주시 제원3길19(연동))
6. 작품규격 : 일반부(대학생 포함) / 단위: cm) - 한글, 한문, 문인화 : 70×200, 70×135(가로×세로) - 전각 : 가로, 세로 각 9cm 이내. 주문, 백문 각 1점(동일지면) - 서각 : 50×100(가로×세로) 이내 - 현대서예(캘리그래피) : 70×70, 35×135, 70×135(가로×세로) 중고등부 / 35×135(가로×세로)(1/2지) 초등부 / 35×70(가로×세로)(1/4지) ※표구(배접)하지 않고 출품해야 하며, 각 부문 작품에 이름 명기 후 낙관 인장 찍을 것
7. 출품자격 및 출품수 : 제한 없음
8. 출품료 : 일반부(대학생 포함)/1점:40,000원 2점:70,000원 3점 이상:1점당 30,000원 우편접수 시 농협계좌 301-0052-8096-21 (예금주 : 한국서예협회제주지회)로 입금 학생부 / 없음
9. 출품내용 : ①창작 및 일서작품 ②국내외에 발표되지 않고 미품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작품
10. 현상회료 : 2021년 7월 10일, 특선이상(불참자 낙선처리 / 도외 출품자는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름)
11. 심사발표 : 2021년 7월 12일 / 한국서예협회 홈페이지 (http://www.seohyeob.or.kr)
12. 표구방법 : 일반부 입선이상 표구비는 본인부담. 추첨에서 일괄표구자 표구하며, 표구하지 않은 작품은 입상 취소함. 학생부 특선 이상 작품(표구비 분회부담)
13. 시 상 : 2021. 8. 22.(일) 오후 6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회관 소극장 일반부 / 대 상 :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작품 매입료 200만원 우수상 : ○명, 상금 각 50만원 특입선 : ○○명, 학생부 / 금 상 : 초등부, 중고등부 각 1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은 상 : ○명 동 상 : ○명 특 선 : ○○명 입 선 : ○○○명 은 상 이하는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장상
14. 특 전 : 일반부 입상자는 본 사회 별도의 규정에 따라 초대작가로 대우함
15. 작품반출 : 낙선작은 심사발표 후 5일 이내 접수처에서, 입상작은 전시종료 당일 오후 4시 전시장에서 본인 반출 (기한 내 찾가지지 않은 작품은 책임지지 않음)
1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화(010-2742-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10.

• 주최 :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에대전 운영위원회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서에대전 운영위원회

우 631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3길 19(연동), ☎ 010-2742-4045